

2018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I. 회 부 안 건

- 의안번호 : 제18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 안 건 :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 2018. 8. 16
- 회부일자 : 2018. 8. 21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II.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

1. 총괄

가. 세입예산안

- 2018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340억 7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2,179억 4천1백만원) 대비 7.4%인 161억 3천6백만원 증가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총 계	234,077	217,941	16,136	7.4
일반회계	234,077	217,941	16,136	7.4

나. 세출예산안

- 2018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934억 7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4,150억 7천4백만원) 대비 18.9%인 784억 2백만원 증가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총 계	493,476	415,074	78,402	18.9
일반회계	493,476	415,074	78,402	18.9

2.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

가.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161억 3천6백만원 증액

(단위: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보 조 금	138,966	112,830	16,136	14.3
국고보조금	138,966	112,830	16,136	14.3

나.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784억 2백만원 증액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소 계	(×115,509) 350,357	(×99,373) 271,955	(×16,136) 78,402	29.4
기후변화기금 전출(신규)	30,000	-	30,000	-
그린카 보급	(×53,905) 84,388	(×40,569) 68,264	(×13,336) 16,124	23.6
반환금 및 기타	27,813	13,478	14,335	106.4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16,541	5,090	11,451	225.0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신규)	2,114	-	2,114	-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7,820) 9,920	(×5,765) 7,865	(×2,055) 2,055	26.1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	(×1,215) 2,266	(×110) 424	(×1,105) 1,842	434.4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65,051	63,838	1,213	1.9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3,000) 6,700	(×3,000) 6,100	(×-) 600	9.8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1,262	1,147	115	10.0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제 추진	1,914	1,814	100	5.5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추진(신규)	100	-	100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47,920) 96,604	(×47,920) 96,554	(×-) 50	0.1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효율화	2,111	3,028	△917	△30.3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지원	(×1,649) 3,573	(×2,009) 4,353	(×△360) △780	△17.9

Ⅲ.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유

1. 세입예산안

가. 증액 예산

○ 증액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분 반영에 따라 3건, 164억 9천6백만원임.

-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국고보조금)」

11억 5백만원 증액

- 「그린카 보급(국고보조금)」

133억 3천6백만원 증액

-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국고보조금)」

20억 5천5백만원 증액

나. 감액 예산

○ 감액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분 반영에 따라 1건, 3억 6천만원임.

-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지원(국고보조금)」

3억 6천만원 감액

2. 세출예산안

가. 증액 예산

□ 증액은 「그린카 보급(민간자본사업보조)」 등 16건, 801억 7백만원임
(국비 165억 1백만원 + 시비 636억 6백만원).

○ 「그린카 보급(민간자본사업보조)」 등 4건은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비 반영에 따라 199억 7백만원 증액되었음(국비 165억 1백만원 + 시비 34억 6백만원).

- 「그린카 보급(민간자본사업보조)」

156억 8천4백만원 증액

- 「그린카 보급(자산및물품취득비)」

4억 4천만원 증액

-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억 5천5백만원 증액

-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민간자본사업보조)」

17억 2천8백만원 증액

○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공공운영비)」은 상암수소스테이션 내 수소제조 설비(열교환기) 긴급 교체에 따라 6천2백만원 증액되었음.

○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시설비)」은 상암수소스테이션 수소연료전지차 충전 용량 증대를 위한 충전승압 설계비 반영에 따라 6천만원 증액되었음.

-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전산개발비)」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 회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참여마일리지’ 운영시스템 구축에 따라 1억원 증액되었음.
-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민간위탁금)」은 시설 민간위탁 재위탁으로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른 비정산비 증가, 비산재 처리비 증가(약 180%) 등에 따른 정산비 증가에 따라 12억 1천3백만원 증액되었음.
-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추진(사무관리비)」은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¹⁾」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포시 라벨 및 홍보물 제작, 배포에 따라 1억원 신규 편성되었음.



{1등급}



{2등급}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_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무관리비)」은 2018년 6월 이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발령 시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안내문 및 과태료 부과²⁾ 고지서 우편발송에 따라 5천만원 증액되었음.

1) 환경부 고시('18.4.25) 대기오염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
(친환경 상위등급차(1~2등급)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각종 인센티브 부여, 하위등급차(5등급)는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운행제한 검토)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제60조(과태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민간위탁사업비)」은 누수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조치로 옥상방수공사, 우수관로공사에 따라 1억 1천5백만원 증액되었음.
-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확대 추진(자치단체자본보조)」은 ‘서울시 대기질 개선사업 이행실태 성과감사결과 처분요구³⁾’에 따른 도로 분진청소차량(분진흡입, 물청소) 보조엔진 매연저감장치 부착(100대)에 따라 6억원 증액되었음.
- 「기후변화기금 전출(기금전출금)」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융자지원 및 기금건전성 유지를 위해 300억원 신규 편성되었음.
- 「반환금 및 기타(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7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정산액 반환 등에 따라 143억 3천5백만원 증액되었음(금번 추경이 없을 경우에는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편성됨).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시설비)」은 2018년 공기업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전환에 따른 서울새활용플라자 부지매입비(재산이관) 반영에 따라 114억 5천1백만원 증액되었음.
-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시설비)」은 2018년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환에 따라 음폐수처리시설 부지매입비(재산이관) 반영에 따라 21억 1천4백만원 증액되었음.

3) 분진청소차량 보조엔진의 오염물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매연저감장치 부착(서울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16280, '18.2.1)

나. 감액 예산

- 감액은 「서울도시고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효율화(민간위탁금)」 등 3건, 17억 4백만원임(국비 3억 6천5백만원 + 시비 13억 3천9백만원).
- 「서울도시고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효율화(민간위탁금)」은 SR센터 운영 방식 변경 검토를 위한 기간 소요로 인해 이전 민간위탁 기간이 연장(~'17.12.31 → ~'18.3.31)되어 금년도 예산집행 기간이 3개월 감소함에 따라 9억 1천7백만원 감액되었음.
-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은 민원발생(은평구 외 대체부지 이전 건립 또는 시설 지하화 요구)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조정 및 매칭비 반영에 따라 7억 8천만원 감액되었음.
-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자치단체자본보조)」은 수소연료전지차 대당 보조금 축소(환경부 지침 '18.3월)에 따라 1대분 750만원⁴⁾ 감액되었음.

4) 당초 4,250만원(국비 2,750만원 + 시비 1,500만원) → 변경 3,500만원(국비 2,250만원 + 시비 1,250만원) : 대당 750만원 감액

I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1. 세입예산안

- 2018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340억 7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2,179억 4천1백만원) 대비 7.4%인 161억 3천 6백만원(전액 국고보조금) 증가되었음.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민원발생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인해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3억 6천만원 감액되었지만,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이하 '수소차') 보급확대를 통한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추경 편성에 따라 「그린카 보급」 등 3건⁵⁾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164억 9천6백만원 증액되었음.

2. 세출예산안

- 2018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934억 7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4,150억 7천4백만원) 대비 18.9%인 784억 2백만원 증가되었음.

증액은 16건, 801억 7백만원(국비 165억 1백만원, 시비 636억 6백만원)으로 이중 정부 추경에 따른 증액(4건, 199억 7백만원), 「기후변화기금 전출(기금 전출금)」(300억원), 2018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환에 따른 재활용 플라자 및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비 반영(2건) 등 7건이 증액 예산의 81.0%를 차지하고 있음.

감액은 3건, 17억 4백만원(국비 3억 6천5백만원, 시비 13억 3천9백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감액 조정)에 따른 매칭비 반영이 2건, 7억 8천 8백만원임.

5) 「그린카 보급」,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

가. 증액 예산

1) 「그린카 보급」 및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

- 「그린카 보급」 사업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전기버스 및 전기이륜차 등을 보급하는 것으로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비 반영에 따라 기정예산(682억 6천4백만원) 대비 23.6%인 161억 2천4백만원⁶⁾ 증액되었으며, 이에 2018년도 그린카 보급물량은 당초 4,030대에서 4,720대(증 690대⁷⁾)로 변경되었음.

〈2018년도 전기차 보급 목표〉

(단위: 대)

구 분	계	승용·화물	버스	택시	이륜차	비 고
당 초	4,030	3,400	30	100	500	당초 대비
변 경	4,720	4,090	30	100	500	690대 증가

- 전기차 보급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했지만, 금년도부터는 출고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고 보조금도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⁸⁾한 바 있으며, 1회 충전 주행거리 증가⁹⁾, 충전인프라 확충 등 전기차 보급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전기차 보급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실제 지난 8월 23일 기준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물량이 3,291대에

6) 민간자본사업보조 156억 8천4백만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4억 4천만원

7) 690대 전량 승용차로 민간 680대, 시·사업소 10대

8) 신청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중 선착순 신청자(기존)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중 출고 2개월 이내의 차량 신청자(변경)

보조금 지급 : 차량 계약(기존) → 차량 출고 등록(변경)

9) '18년 출시 전기차 : 현대 '코나'(405km 주행/1회 충전), 기아 '니로'(390km 주행/1회 충전)

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신청물량이 접수되고 있는 바, 금번 추경에 따라 금년도 보급물량이 증가하더라도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전기차 시대선언 실천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기차 보급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해당 부서¹⁰⁾의 업무 강도는 점차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급변하고 있는 전기차 기술동향 및 시장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향후 인력 충원을 고려해야 할 것임.

〈연차별 전기차 보급 계획〉

(단위: 대)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2년	~ 2025년
누적대수	9,129	22,229	40,029	80,499	145,599

*전기이륜차 제외

- 한편,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은 완속충전기 685기¹¹⁾ 추가 설치에 따라 기정예산(78억 6천5백만원) 대비 26.1%인 20억 5천5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전액 국비로 편성되고 전기차 보급물량 증가에 따라 완속충전기 설치 물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에 문제는 없을 것임.

〈연차별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계획(누적)〉

(단위: 대)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2년	비 고
계	664	958	2,000	완전개방형 기준
급 속	384	528	1,000	
완 속	280	430	1,000	

10) 현 그린카보급팀 5명

11) 완속충전기는 공용(완전개방 + 부분개방)과 비공용(개인용)으로 구분되고 금년도 설치 물량은 정부 추경에 따라 당초 1,920기에서 2,605기로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1기당 3백만원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서울시와 위수탁 협약(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따라 설치하고 있음.

2)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 관련

- 동 사업은 수소차¹²⁾ 보급 및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비 및 수소차 보조단가 조정분¹³⁾ 반영, 상암수소스테이션 충전승압 설계비 반영 등에 따라 기정예산(4억 2천4백만원) 대비 434.4%인 18억 4천2백만원 증액되었음.

〈추경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215) 2,266	(×110) 424	(×1,105) 1,842	
공공운영비	316	254	62	·열교환기
시설비	60	-	60	·충전승압 설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1,193) 1,855	(×83) 128	(×1,110) 1,728	·수소차 보조금(50대)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23) 35	(×28) 43	(×△5) △8	·수소차 보조단가 조정

- 수소차의 경우 일반 전기차에 비해 더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보급목표는 총 4대(민간 3대, 공공 1대)에 그치는 등 최근의 그린카 보급 사업은 전기차에 집중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소차 보급 활성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의회신문고를 통해서도 수소차 보급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3건)이 제기된 바 있음('18년 현재 수소차 누적보급 대수 32대(민간 31, 공공 1)).
- 따라서 금번 추경에 따른 보급수량 증가(50대)는 수소차 보급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최근 수소차 구매에 대한 사전 조사결과에서도 400대 정도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물량 증가에 따른 문제는 없을

12) 수소연료전지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로 수소를 스택(전기발생장치)에 흘려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과정에서 스스로 전기를 생산·모터 구동하고 물과 공기만 배출함

13) 당초 4,250만원(국비 2,750, 시비 1,500) → 변경 3,500만원(국비 2,250, 시비 1,250)(환경부지침, '18.3월)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충전소가 상암 수소스테이션과 양재 그린스테이션 2곳¹⁴⁾ 밖에 없어 수소차 충전에 불편함이 있는 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충전소 충전능압을 통한 충전용량 증대와 더불어 충전소 추가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충전소 설치를 위해서는 엄격한 입지조건 충족,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 및 제작사 등과도 긴밀한 협력강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임.

	<p>차량가격 : 6,890~7,220만원 주행거리 : 593~609km/1회 충전 연료전지파워 : 95kW 충전시간 : 약 5분 (전기차의 경우 30~40분) 보조금 : 3,500만원</p>
--	---

〈현대자동차 넥쏘(NEXO)〉

3)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관련

- 동 사업은 양천 등 4개 자원회수시설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인건비 상승분 반영 및 소각 비산재 처리비 시장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에 따라 기정예산(662억 6천 4백만원) 대비 1.9%인 12억 1천3백만원 증액되었음.

- 자원회수시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협약시 3년분의 비정산비를 확정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의 경우 협약금액과 임금상승률(약 2.4%)을 고려

14) 일 최대 충전 가능 대수는 상암 수소스테이션 30대, 양재 그린스테이션(현대차 직영) 15대 수준임.

하여 편성한 바 있음.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현황〉

구 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시설규모	400톤/일	800톤/일	900톤/일	750톤/일
업 체 명	한국시거스(주)	(주)우주엔비텍	한리산업개발(주)	삼중환경기술(주)외
위탁기간	'17.4. ~ '20.3.	'18.2. ~ '21.1.	'17.4. ~ '20.3.	'18.6. ~ '21.5.
위탁금액(3년)	11,536백만원	12,633백만원	13,962백만원	14,174백만원

그러나 금년도에 재위탁이 이루어진 마포,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재협약 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3.8%) 및 서울시 생활임금(12.4%) 상승에 따른 저임금층 임금 인상폭 증가로 인해 임금상승률이 당초 전망치 보다 높아졌으며, 민간 매립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는 지정폐기물인 소각 비산재의 경우 허가 받은 매립지 면적 감소로 인해 금년 초 시장가격이 급등¹⁵⁾하여 비산재 처리비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불가피성은 인정됨.

다만, 비산재 처리비의 경우 전년대비 174.7% 급등하고 있는 바, 시장 가격 변동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임.

4) 「기후변화기금 전출」 관련

○ 동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용자지원 및 비용자성 사업비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로 300억원을 편성하였음.

○ 2017년도말 기후변화기금 조성액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15) 83천원/톤('17년) → 228천원/톤('18년)

국고보조금 증가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수입¹⁶⁾에 따른 기타수입 증가에 기인하여 일시적으로 소폭 상승되었지만, 내용면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비융자성 사업 확대에 의해 실제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액은 당초 지출 계획 대비 43억 3천3백만원¹⁷⁾(58.5%) 증가되었음.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말	2016년도말	2015년도말	2014년도말	2013년도말
조성액	52,946	45,842	47,740	51,645	67,077

- 기후변화기금 내 비융자성 사업비는 융자성 사업비와 달리 회수되지 않는 재원으로써 비융자성 사업비의 증가는 연도말 조성액 감소를 초래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비융자성 사업비의 과다 증가는 지양해야 할 것임.

그러나 2018년도 지출계획에 따르면,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¹⁸⁾에 따라 비융자성 사업비가 전년 대비 207억 7천9백만원 증가되는 등 비융자성 사업비 비중¹⁹⁾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도말 조성액은 다시 급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에서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한 바 있음.

〈비융자성/융자성 사업비 지출계획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비융자성		융자성		비융자성 지출계획	융 자 성 지출계획
	지출계획	지출	지출계획	지출		
지출액	7,409	11,742	16,800	13,070	32,521	23,500

16) 서울시 소재 23개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에 대한 확보량(잉여분) 매각 : 9,338백만원

17) 지출계획 74억 9백만원 → 지출 117억 4천2백만원

18) '18~'22년까지 원전 1기 설비용량(1GW)에 해당하는 태양광 확대 보급

19) 비융자성 사업비 / 융자성 사업비 : 89.8%('17년) → 138.4%('18년)

- 따라서 금번 추경에 기금전출금 300억원을 편성한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기금의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이 2022년까지 추진됨에 따라 당분간은 비용자성 사업비 지출²⁰⁾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바, 기금전출금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임.
- 한편, 동 기금전출금으로 인해 기후변화기금 수입(전입금) 및 예치금이 증액되는 바, 금번 추경안과 함께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의회 동의²¹⁾를 받아야 함.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안건 제출은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8월 16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이 누락되었고 뒤늦게 제출(8월 28일)하는 절차상 실수가 있었던 바, 이후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해야 할 것임.

5) 「반환금 및 기타」 관련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국고보조금 정산액 및 발생 이자를 반환하는 것으로 통상 결산 이후 다음연도²²⁾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있지만, 추경을 통해 금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기정예산(134억 7천8백만원) 대비 106.4%인 143억 3천5백만원 증액되었음.

- 이와 같이 추경으로 인해 반환금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근

20) '19~'22년까지 3,460억 8천3백만원

21)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20% 이상)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_행정안전부)

22) 예) '17회계연도 결산('18년) 이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19년도 세출예산(반환금)에 편성

2년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00억원 이상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_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 부진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다만,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_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지난 결산심사 시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나 예측 없이 국비 매칭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므로 이후 면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을 주문한 바 있으며,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2017년도까지는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지만, 금년도부터는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따라서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한다면, 이후 「반환금」 규모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6) 「재산이관에 따른 예산 반영」 관련

-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²³⁾」를 설치('18.1.1)한 바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규정을 따르고 있음.

- 현재 「서울재활용플라자²⁴⁾」와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각각 서남, 중랑

23) 기존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폐지

물재생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2018년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전환)에 따라 물재생시설과로부터 물재생센터 부지 내의 하수도 아닌 다른 시설을 유상으로 재산이관 할 것을 요청 받았고 부지매입 비용으로 135억 6천5백만원²⁵⁾을 증액한 바,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나. 감액 예산

1)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효율화」 관련

○ 동 사업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이하 ‘SR센터’) 민간위탁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기정예산(30억 2천8백만원) 대비 30.3%인 9억 1천7백만원²⁶⁾ 감액되었으며, 감액 사유를 SR센터 운영 방식 변경 검토를 위한 기간 소요로 인해 기존 위탁기간이 연장되어 금년도 예산 집행기간이 3개월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SR센터는 소형폐가전제품의 적법한 처리와 도시광산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소형폐가전, 폐휴대폰, 폐사무기기 등을 수거한 후 분해 공정을 거쳐 자원화²⁷⁾하려는 목적으로 2009년 설립되어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판매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²⁸⁾하고 수탁업체인 에코시티서울(주)에 대한 사회적기업 지원²⁹⁾이 2015년 종료된 이후 운영수지 적자 폭이 확대됨에 따라 별도의 예산 지원³⁰⁾이나 민간위탁금 편성³¹⁾ 없이는 SR

24) 새활용(업사이클링) 등 자원순환 산업 육성 및 문화확산의 거점공간으로 '17.9.15일 개관

25)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시설비)」 114억 5천1백만원 +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시설비)」 21억 1천4백만원

26) 금년도 위탁기간 9개월분 계약심사 금액 차액(예비비 1억 9백만원 포함)

27) 연간 처리능력 : 폐중소형가전 3,600톤, 폐휴대폰 70만대

28) 고철류(원/kg) : 308('14년) → 221('15년) → 108('16년) → 175('17년)

플라스틱류(원/kg) : 440('14년) → 440('15년) → 285('16년) → 200('17년)

29) '10~'15년까지 매년 1억 3천만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지원

센터 운영이 어렵게 되었음.

또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재정법」 위반³²⁾ 소지가 제기됨에 따라 운영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예산지원형'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였고 이에 맞춰 2018년도 세출예산에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안정적인 SR센터 운영을 위해 운영 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문해왔고 이에 지난해 제276회 임시회('17.8.30) 업무보고 시 위탁방식 확정(변경)과 기존 위탁 기간 연장을 포함한 이후 일정을 보고한 바 있어, 해당 부서에서는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 동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을 9개월분만 편성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제276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내용 중)

향후 일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7. 9월
- 시의회 동의 및 일상감사 의뢰 : '17.11월 ~ 12월
- 수탁기관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18. 1월 ~ 2월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의뢰 : '18. 2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18. 3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금을 12개월분 편성하고 이후 금년도 예산집행 기간 3개월 감소 사유로 민간위탁금을 3개월분 감액하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이 적절하지 못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임.

30) '16년 시 지원금으로 3억 4천6백만원 지출

31) '17년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임에도 별도의 민간위탁금 편성

32)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의 경우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음('15년 5월, 법률자문결과)

- 판매수익금을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은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원칙 위반

- 수익금을 시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예산을 작성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산출내역 중]

예산안 산출근거

과 목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민 간 위탁금	○ 사회적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20명×1,500천원×12월=360백만원	○ 비정산비 SR센터 운영원가 산정 = 2,155백만원
		○ 정산비 SR센터 운영원가 산정 = 630백만원
	증감사유	
	민간위탁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수익창출형→예산지원형)	

2)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지원」 관련

- 동 사업은 서울 서북권(은평, 서대문, 마포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활용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지연에 따른 국비 감액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43억 5천3백만원) 대비 17.9%인 7억 8천만원 감액되었음(국비 30% : 시비 35% : 구비 35%).
-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장(수색동 소재)은 은평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활용품만 처리하고 있으며³³⁾, 3개구가 공동 이용하게 되는 은평 광역 자원순환센터가 신규 건립³⁴⁾되면 기존 시설은 폐쇄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 제기로 인해 은평구에서는 대체부지 이전 또는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이러한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추경예산안 35억 7천3백만원도 전액 불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재개를 위한 해결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

33)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경우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을 경기도 소재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

34) 기간 '16 ~ '21년, 용량 150톤/일, 총 사업비 303억원(국비 90억원, 시비 106억원, 구비 106억원)